



‘온전함을 사모하는’ 글로벌 특별새벽부흥예배

SaGa와 함께하는 제19차 봄 특별새벽부흥예배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Let Christ Be King

뉴스레터 News Letter 246호 주후 2021년 4월 15일(목)

아바 아버지 ABBA FATHER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두 손을 다 펼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과 사모하는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녀 됨의 특권을 누리므로

내 마음의 황폐했던 내용, 위기 앞의 우리 가정의 문제들
평생의 기도 제목들, 절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아바 아버지이시고, 생명 되시며,
죽음보다 더 강한 인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바 아버지께서 모든 기도 제목들을
기적과 같이 응답하여 주셔서,

아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특새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자녀 된 특권과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온 기도의 영광과 자녀 됨의 특권과 치유와 기쁨 부으심을
막 퍼트리는 거룩한 전염을 일으키는
은혜의 재생산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4일 특새 오정현 담임목사님의 기도 인도 중에서-



단체사진은 18차 특새, 거리두기 1단계 수용인원 50% 사진입니다.

TODAY'S PRAYER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은혜를 주옵소서

- 1/ 육체의 한계를 주님 손 잡고 뛰어넘어 복된 자리인 특새에 참여할 때에, 영가족들의 내면이 성숙함으로 점점 변화되며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 2/ SaGa와 글로벌 참여교회들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영적으로 무장되는 백신이 되며, 모든 한계와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의의 병기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 3/ 미안마 사태에 친히 간섭하셔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갈등과 충돌을 속히 멈춰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기초가 되는 새로운 땅이 되게 하옵소서.
- 4/ 세워주신 강사님(김 심빌라 목사, 김예랑 성도)과 담임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압도적인 친밀감을 허락하셔서, 온 성도들이 위로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상처 입은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도의 특권 (롬 8:14~15)

마이클 리브스 총장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고 확신에 찬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abba) 아버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바”라는 호칭은 아람어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함을 상징하는 호칭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 단어를 하나님을 향해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원주민 그나스 사람의 아들, 즉 ‘이방인의 개’였지만 유다지와 왕족으로 편입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붙들기 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

(마 25:40)

지성호 의원



북한에서 장애를 가진 꽃제비(거지)로 살던 자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소식을 북한 주민이 듣게 되면 통일이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09년 북한사랑의선교부에 등록하고, 이듬해에 새신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때 교회에서는 제게 양복 한 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 옷을 입고 미국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은 물론 유럽,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적 통일이 하루 속히 오는 것, 탈북민이 이 땅에서 성공해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치를 하는 제 자신이 많은 탈북민과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짐 심발라 목사의 기도응답



짐 심발라 목사의 딸 크리스시(Chrissy)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16살 때 가출을 하고 아이까지 출산했습니다. 가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크리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가족은 절망과 고통의 터널 속이었습니다. 이때 짐 심발라 목사는 결사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화요일기도회 때에 “크리스시를 위해 기도하자”는 쪽지 하나를 한 성도로부터 건네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온 성도의 간절한 기도소리가 마치 병원 분만실 같았습니다.

이 기도가 끝난 후, 하나님은 ‘크리스시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다’는 확신을 주셨고, 즉각적인 기도응답을 하셨습니다. 불과 36시간이 지나지도 않은 시간에 크리스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시는 “제가 하나님과 부모님께 큰 죄를 지었어요. 어젯밤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더니 제가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모습을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라며 부모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지금 짐 심발라의 딸 크리스시는 교회 내 성경학교 음악프로그램을 섬기고 있고, 신실한 믿음의 형제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며 온전해 지기를 원합니다

김단은 자매(대학7부)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담임목사님의 주일예배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더 사모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은혜의 막강 선물세트인 특별새벽부흥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새에서 주시는 말씀들은 취업이 되지 않아 낙심하는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결코 이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치유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더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가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 은혜의 식단을 짜고 개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나 온전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증



은혜를 더 기대하며 온전해 지기를 원합니다

김영 자매(청년B국)



저는 특별새벽부흥예배 때마다 부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됩니다. 그 무한한 은혜가 갈급해서 올해도 어김없이 잠을 깨워 교회로 달려 나옵니다. 특새 때 더해지는 참 자유와 참 기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실 영원한 온전함을 사모합니다**. 비록 제 삶에 온전함의 고봉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발걸음은 무겁고 더디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따라 맞춤형 은혜로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평생의 기도제목을 안고 안아주심의 본당으로 힘차게 향할 내일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선교사 간증 On

김경옥 선교사
(아프리카 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故유승렬 선교사가 코로나19로 지난 2월 5일 소천한 이후 저에게도 생명을 잃을 암울한 상황에서 있을 때 에어 앰블런스를 보내주시고, 한국에서 집중치료를 통해 회복하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신 사랑의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오정현 담임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힘든 중에 유 선교사와 저를 위한 사랑의교회의 기도문을 보면서 저는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뜨겁게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가나로 돌아갑니다. 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나 선교의 기회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모든 상황에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돌아가면 유 선교사의 묘지 선정, 장막, 사역, 학교, 사업장을 살펴야 합니다. 그때마다 먼저 본향으로 돌아간 유 선교사를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온전함을 사모하는' 글로벌 특세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새 힘을 얻는 은혜로운 시간되시길 기도합니다.



글로벌 간증 On

루마니아 | 아델리나 자매



작년 특세는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루마니아에 있는 교회에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줌(ZOOM)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예배는 얼마나 강력한지,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크게 감동되었고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만나면서, 사랑의교회에 직접 가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길 만드는 주(Way Maker)"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심오한지 그 때는 몰랐는데, 그 가사가 그대로 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요, 기적을 일으키시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You are: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길을 만드셔서 사랑의교회에 오게 하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글로벌 특세를 통해 웨키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He is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and light in the darkness. Hallelujah!

글로벌 기도제목 On



중유럽

1. 구 공산주의로 인해 무신론이 팽배한 중유럽국가들에 복음주의 교회가 번성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교회에 보내 주옵소서.
2. 사랑의교회 파트너 사역들이 팬데믹의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경험하며, 믿음 안에 주와 견고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3.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에서 복음을 충성되게 전파할 더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과 교회개척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순장장의 특세 소감 On



하나님의 선물

도민정 권사(여순장장)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는 제19차 '온전함을 사모하는' 글로벌 특세는 하나님께서 사랑의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지난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본당에서 특세를 허락해주실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본당에 달려나와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특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같은 주의 일하심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전 세계교회가 특세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어 사랑의교회를 세계선교의 허브로 사용하시는 가슴 벅찬 사역입니다. 온라인 시대에 허락하신 사랑의교회의 새로운 사명이 축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말씀한 '세계 선교의 절박성과 긴박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영가족 모두가 자작 없는 우리를 자녀라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주신 사명 동참하며 그 뜻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날마다 특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말씀과 동행할 때,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길 기도 드립니다.



온전함의 고봉을 향한 글로벌 특세열차

이화규 집사(남순장장)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가운데 진행되는 작년과 올해의 특세는 더욱 은혜가 넘치는 특별한 새벽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로 본당 외의 술한 부족설, 그리고 복도 의자에 앉아서도 행복해하는 표정들이 이 절실함을 알려줍니다. 이 땅을 넘어 온 열방에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간절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았던 삼겹줄인 '분별력과 집중력 그리고 끈기'를 특세를 통해 더욱 강고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남순장들은 이번 특세에 그 부어주시는 은혜의 황금 사다리를 타고 온전함의 고봉을 향해 올라가고자 합니다. 서초동에서 시작하여 격동의 세계사적 변화를 대변직관(大變直觀)하며, 유럽으로 달려가는 글로벌 특별새벽 횡단열차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슴터질 것 같은 기도의 은혜

김은숙 권사(여직장순장장)



새벽 길을 달리던 마리아처럼, 빗 속을 달리던 엘리야처럼 그저 특세를 향하여 달리고 싶었고, 주님 바라보며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 분명 빈 손으로 달려왔는데 돌아갈 때는 양손 가득 무엇인가 한 바구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기도, 마음과 힘을 다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사실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라는 거룩한 말들을 그냥 날려버릴 때가 많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주의 왕이신 아버지께서 모두 듣고 응답하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향기보다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향연을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특세입니다.

1. 기도주제

오늘의 기도 주제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은혜를 주옵소서'입니다.

2. 감사소개

*오늘: **짐 심발라** (뉴욕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행 12:5-7)

김예랑 (기도공동체 '화이팅게일' 섬김이, KBS 21기 공채 탤런트)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살전 5:16-18)

*내일: **오스 기니스** ('소망' 저자)

'21세기 교회에 주어진 기회와 당면과제' (엡 6:10-13)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그가 이루시고' (시 37:5)

3. 은혜로운 카롤 이용안내

꼭 필요한 노선의 특새 버스만을 운행하고자 합니다. 교구별로 지혜와 사랑을 모아 카폴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차 안내

교회주차장, 마제스타시티 지하 6,7층: 월요일 - 금요일 2시 30분 - 7시까지, 7시 출차(이후 유료), 더바인 웨딩 & GS파크 24: 토요일만 가능, 8시 30분 출차(이후 유료). 성숙한 주차문화는 영성입니다.

5. 은혜 게시판 활용

쏟아지는 은혜를 게시판에 작성해주시는 401-600번 성도님들께 Teleios 키링을 드립니다

* 한국교회/ 세계교회 성도님께서는 sarang on youtube 영상 아래 '더 보기'란에 나와있는 <연합 특새 홈페이지> 링크 https://together_revival.sarang.org/index.asp를 클릭하셔서 은혜 게시판 (reflection blog)에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성함과 교회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eleios



받은 은혜 쏘지 말고, 게시판에 담아 두자

나에게 글로벌 특새란?

나에게 글로벌 특새란? 새벽배송이다.

이영경 / 왜냐하면? 새벽에 받은 은혜를 즉시 카톡으로 전송하기 때문이다. 이번 19차 봄 특새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특새 영상을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친구에게도 미국에 있는 영가족에게도 지방에 있는 사촌 언니에게도 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그들이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불만해하고 있을때 딱 맞는 맞춤형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 몸이 전율이 느껴집니다. 사랑의 교회 글로벌 특새로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글로벌 특새란 기대되는 '미슐랭 19스타 맛집'이다.

신준하 / "왜냐하면? 글로벌 특새는 횡수가 더해 갈수록 보는 재미, 듣는 재미, 먹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 보는 재미 - 책에서만 보던 해외 목사님들과 귀한 강사님들을 실물로 뵈는 재미

* 듣는 재미 - 하나님께서 이 분들을 통해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 귀를 쫓긋거리게 되는 재미와 찬양을 들으며 부르는 재미

* 먹는 재미 - 주신 말씀을 받아 깨닫고 양식으로 삼아 사는 재미 때문이다.

나에게 글로벌 특새란? 사기(4기)충전 시간이다.

박서연 /

1. 기쁨이다: 왜냐하면 특새에 다녀오면 하루종일 즐겁기 때문이다.
2. 기대감이다: 왜냐하면 다음날 특새 시간이 기다려지기 때문이다.
3. 기대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기대되기 때문이다.
4. 기도이다: 왜냐하면 기도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글로벌 특새란 '미래전략보고서 2021'이다

변아름 /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전략이었고, 이를 통한 부흥의 반향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글로벌 특새는 SAGA이다.

안수미 / 왜냐하면? 참여하면 반드시 주시는 Special amazing Great Awesome 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글로벌 특새란 '엔택트 단거리전'이다.

박정원 /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연결된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함으로,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비록 직접 경험할 수 없지만, 글로벌 특새를 통해 마음으로 나라와 세계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다.

류영아 / 내가 태어나니 복한 땅이었는데

지성호 의원의 간증을 통해 복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복한은 사료로 쓰이는 옥수수 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복한 동포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자유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이며 행복인지 몰랐습니다. 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 집중하여 온전함의 고통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임미경 / 민족의 태산자이인 복한의 영혼을 풀고 새꿈을 꿔니다.

부활절에 풀은 태산자들을 놓고 기도하며 가을 대각성전도집회에 초청할것을 생각했습니다. 더 확장하여 우리 민족의 태산자들인 복한의 영혼 2500만을 풀고 기도할때, 평양에서 특새하는 꿈과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복한의 영혼들을 볼쌍히 여기소서!"

한창룡 / 이방민 개, 꽃게비도 풀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갈렙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주님! 보잘 것 없는 저희들의 뻔뻔한 기도까지도 온전케 들어 주시는 사랑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원의 시각으로 보는 T (Teleios) 세대의 특징

X세대 (1965~1980)

Item: PC, 바비벡, 워크맨

Keyword:

- 노동 중심적
- 충성, 애국
- 안정, 화목, 가정

Y세대 (1981~1995)

Item: 스마트폰, 태블릿

Keyword:

- 워라밸 중심적
- 독립심, 자율성, 유연함
- 세계화, 자발성

Z세대 (1996~2010)

Item: IoT (사물 인터넷)

Keyword:

- 독립심 추구
- 편견 없음, 수평적 관계
- 추종, 동경, SNS에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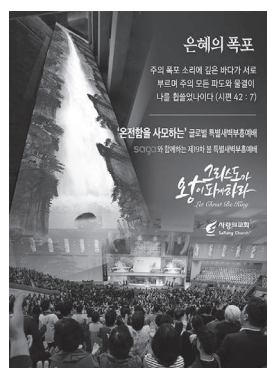
(Teleios) T세대 (2011~영원)

Item: *온전함*

Keyword:

- 은혜의식, 사명의식
- 자녀됨, 임재지식
- 글로벌 특새, SAGA

선정된 6분께는 <특새 Limited Edition 은혜의 폭포 퍼즐>을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Teleios 키링>을 드립니다. 예배 후 남측 1층에서 받아 가지기 바랍니다.



넷째날

기도는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진정한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